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신입사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박나라 기자 | ☎ 승인 2025.04.29 18:30

AI 교육부터 세대공감 소통까지...“적응을 넘어 성장을 향해”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신입사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2024년과 2025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82명이 참여했으며, AI 실무 교육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직 적응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첫날 오전에는 박대현 율파팀 강사의 진행 아래 '아이스브레이킹과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입사원들은 협동과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동기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조직 내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대공감 소통시간'에서는 입사 3~5년 차 선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직무 경험을 공유했다.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신입사원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세대 간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혔다.

오후에는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역량 강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유소영 한국AI교육진흥원 컨설턴트가 진행한 이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프롬프트 작성법, 이미지 제작 실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직접 청렴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AI 포스터를 제작해보는 실습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이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민수 본부장이 직접 참여한 '세대공감 소통시간'이 진행됐다. 밸런스 게임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직급과 직책을 넘은 소통이 이뤄졌으며,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채워졌다. '고객 서비스 스킬업'과 '슬기로운 공문서 작성법' 강의를 통해 민원 응대 요령, 정확한 문서 작성법 등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 신입사원들이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고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나라 기자 nara79@afnews.co.kr